

3Q인적성검사

(초·중·고교용)

분석결과 해설표

감수 : 최성우(美 USC 교육공학 석·박사)
김판수(美 Univ. Columbia(CTU) 교육공학 석·박사)
양종국(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전공 석·박사)

추천 : 이세용(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산업교육심리학 전공)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평생교육학과
(부설)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한국인적성평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59(신한이노플렉스 3층)
문의전화: (02)558-6784~5 상담전화: 010-6345-8093

홈페이지: <http://www.3qtest.co.kr>

1. 인성(성격) 해설

인격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성격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은 자로 재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몇 마디 말이나 숫자, 문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앞으로 자녀의 성장과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검사결과 전체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예상, 측정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어떤 판단이나 통제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같은 또래의 평균보다 얼마나 바람직하게 발달했는가,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성(성격)을 본 검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성(성격)은 결과표에 각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받은지수는 검사를 받은 개인의 점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등급은 피검사자의 평가지수를 이해하기 쉽게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A+)~(E)까지의 6개 등급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인성(성격)에서 받은지수가 높을 때에는 같은 또래의 보통 학생들보다 검사를 받은 학생의 성격이나 행동 발달 특성이 우수하다고 해석하게 되며, 그와 반대로 낮으면 그에 따른 부족한 행동특성에 대해서 교정방법과 지도방법을 해석하게 됩니다. 낮은 등급별로 해석된 세부 항목이 뒤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별기준과 표시해설(A+,A,B,C,D,E)은 결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감정상태 | 정서상태 | |
|--------------|--|---|---|
| 정의 |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행위를 결정하는 목적과 감정상태를 분석한다. | 행동의 균형상태와 정서적 사고의 흐름에 대한 안정정도를 나타낸다. | |
| 낮아지는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쾌감의 반복적인 체험으로 무의식에 축적 될 때. ▷주위 인물이나 환경에 의해 억압을 받을 때. ▷정신적인 충격(쇼크) ▷예기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감이 크게 상실되었을 때 ▷본능의 욕구(소유욕)가 매우 강할 때 ▷인격(자존심)에 손상을 받을 때 ▷부모님간의 불화가 있을 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 |
| 등급표시 및 상태 해석 |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상태가 다소 불안할 수 있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사고가 공존한다. ▷다소 신경질적이고 흥분을 잘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인 큰 장애요인은 없으나, 생각에 공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위가 산만하다. ▷미래가 현실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
|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상태나 신경계통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이다. ▷외부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가 불안한 상태이며, 사고의 흐름이 현실보다는 환상과 공상으로 치우친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
| | 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소한 일에도 흥분을 잘 하고 신경질적이다. ▷외부환경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대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 장애요소와 과대망상, 피해망상, 자폐증 등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위험이나 위협이 닥칠 때 어찌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 한다. |
| 교정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객관적 사고의 폭을 넓게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주위와 마찰을 피하고 폭넓게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자기중심의 사고를 상대중심으로 전환한다. ▷예기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불안의 요인을 찾아 해소한다. ▷지나친 의욕에 인한 집착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각성한다. ▷현실을 중시하도록 지도한다. ▷환상과 공상을 없애도록 하며, 실제적 사고를 하도록 지도한다. | |

| 항목 | 근면성 | | 책임감 |
|---------------|--|--|---|
| 정의 |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주변 환경과 사물에 대한 정서적, 창조적 욕구를 나타낸다. | | 본능의 영역에 속하면서 의식적 상태의 창조적 성취의욕을 분석, 잘못된 전가와 솔직성 여부를 나타낸다. |
| 낮아지는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기 때 영양섭취 부족 ▷유아기 때 수유 부족, 편식 ▷심한 욕구의 좌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외부에 의해 지나친 억압을 받을 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애정결핍(부모, 주위인물) ▷보람을 상실하였을 때 ▷객관적 양식이 결핍되어 있을 때 |
| 등급 표시 및 상태 해석 | C |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소 부족하며 성실하지 못하다. ▷매사에 칭찬으로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며, 스스로 판단하여 실행하는 것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
| | D | ▷본능적 욕구가 좌절 되어있으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소극적이며 무기력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 ▷의무감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자기 도취적인 경향이 있는 편이다. |
| | E | ▷성취하려는 욕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의지력도 매우 부족하다. ▷신체적 증상(습관성 변비, 신경성 소화불량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계획적인 면과 준비성이 없고 게으르다. |
| 교정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영양을 보충시킨다. ▷본능적, 창조적 의욕을 억압하는 원인을 찾아 해소한다. ▷보상기재(칭찬 등)를 강화한다. ▷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지도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속에서 자기 존재치를 높여 폭넓은 가변성을 갖도록 한다. ▷무의식적인 공포를 해소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성취의욕을 가지도록 보상을 해준다. ▷계획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

| 항목 | 협동성 | | 자율성 |
|---------------|---|---|---|
| 정의 |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 공동작업, 상호 이해의 정도, 객관적인 사고의 폭, 단체 생활에 대한 참여 정도를 나타낸다. | | 독자적인 해결성과 의견 주장의 자신감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 자아의 가변성에 대한 이해력의 폭을 나타낸다. |
| 낮아지는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의 가변성(애정, 관심)이 부족할 때 ▷자아발달이 부족할 때 ▷역사의식이 부족할 때 ▷공동체의식이 부족할 때 ▷다소 지능의 영향이 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수용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아의 방어기재가 악화되어 있을 때 ▷어머니의 가변성 부족(과잉보호, 성급한 기대) ▷지나친 간섭을 할 때 |
| 등급 표시 및 상태 해석 | C | ▷자아의 가변성이나 이해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웃이나 친구와 융화는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 | ▷의타심이 다소 있지만 독립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 | D | ▷객관성의 폭이 좁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중압감이나 공포감이 잠재되어 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다. | ▷자아의 방어기재가 약하고, 자기 변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외부 중심적인 성격이고, 소극적이며 내성적이다.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
| | E | ▷생각의 폭이 대단히 좁고, 이해심도 없는 상태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순발력이 떨어진다. | ▷의타심이 많고 수동적인 행동을 한다. ▷교육의 수용상태가 좋지 않다. ▷어떤 일을 아주 어렵게 하는 편이다. |
| 교정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중압감이나 공포감을 해소한다. ▷객관성의 폭을 넓혀 이해심을 갖도록 한다. ▷역사의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양한다. ▷어머니의 가변성(용납, 수용의사, 존중, 관심과 사랑)의 폭을 넓힌다. ▷무의식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대화와 관심으로 해소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의 가변성(성급한 기대 축소)폭을 넓힌다. ▷보상기재를 강화한다. ▷교육의 수용상태를 높인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다. ▷부모나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준다.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한다. ▷지나친 간섭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 항목 | 규범성 | 리더십 | |
|---------------|--|---|---|
| 정의 | 객관적 규범과 질서의 수용상태 주변 환경과 아버지의 엄격성여부, 윗사람에 대한 어휘력의 신뢰도 등을 나타낸다. | 집, 단체 속에서의 통솔력, 설득력, 결단력, 추진력, 신뢰받는 정도 내, 외성적 성격 여부를 나타낸다. | |
| 낮아지는 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대리부)의 엄격성 부족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윗사람의 일관성 없는 태도의 영향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규범과 질서가 없는 가정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의 내성적인 성격이 전이될 때 ▷자기발표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꾸중하거나 의식할 때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때 | |
| 등급 표시 및 상태 해석 |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 약속 따위를 지키려는 태도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표현력이나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여 남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다소 소심한 성격을 보이는 편이다, |
|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통제 기준이 약화되어 있으며, 규범을 무시하거나 작심3일의 경향이 있다. ▷규칙이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표현력, 어휘력, 설득력 등이 부족하며, 지도적 위치에 대해 공포를 가진다.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내성적이며 비활동적이다. |
| | 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이나 법, 도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윗사람에 대한 불신감과 신뢰성 상실로 저항의식을 갖고 있다. ▷우유부단하며,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력, 어휘력, 설득력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자신감이 없으며,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는다. |
| 교정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한다.) ▷외부의 엄격성이 자신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결과임을 각성시킨다. ▷아버지(대리부)의 엄격성을 강화한다. ▷주위환경을 잘 정리하여 준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지적과 꾸중보다는 품위있는 교육적 충고로 지도한다. ▷아버지의 권위를 향상한다. ▷체계적인 교육, 단체활동의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공포증(대인, 시선공포증 등)의 원인을 찾아 해소시킨다. | |

2. 지능(IQ) 해설

지능(IQ)이란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지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의 지능은 상당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본 검사결과 나타난 지능 결과를 절대적인 지능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단지 교육의 지도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지능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지능 수준일 때, 어떤 지도와 대응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하여 지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 가망이 없다는 위험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써, 흔히 지능(IQ)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개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높은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즉 IQ가 높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능(IQ)은 흔히 알고 있듯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지능(IQ)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능(IQ)의 구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항목별 정의 |
|------|--|
| 수계산 | 계산능력, 수의 사용방식, 논리적 합리적 사고의 속도, 판단능력 및 적응력을 나타낸다. |
| 구성감각 | 사물의 모양과 변화에 대한 판단속도와 상상력, 탐구력, 적응력을 나타낸다. |
| 공간지각 | 내적인 충동이나 외부의 자극에 대한 판단의 속도를 나타내며, 사태의 정확한 처리능력을 나타낸다. |
| 언어감각 | 언어의 발음상태나 논리성, 합리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
| 언어이해 | 언어사용의 논리성, 단어의 의미, 낱말의 상호관계의 추리능력,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
| 수개념 | 객관적 사고에 의한 논리성 사고의 판단능력과 판단속도의 적응력을 나타낸다. |

지능(IQ) 평가기준

| 구분 | 평가 지수 | 평가 등급 |
|-----|---------------|-------|
| 최우수 | 140이상 | A+ |
| 우수 | 130이상 ~ 140미만 | A |
| 보통상 | 120이상 ~ 130미만 | A, B |
| 보통 | 105이상 ~ 120미만 | B, C |
| 보통하 | 95이상 ~ 105미만 | C, D |
| 하 | 80이상 ~ 95미만 | D |
| 최 하 | 80미만 | E |

◆종합지능보다 항목평가가 떨어지는 경우 학습능력은 신장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성(성격)의 영향을 받아 정서상태가 학습에 부적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성(성격)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인성(성격)과 지능(IQ) 분석결과의 활용

앞에서 인성(성격)과 지능(IQ)의 등급별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은 몇 마디의 말이나 숫자, 그리고 몇 가지 내용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표에 나타난 등급이나 숫자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컨대 “지도력”이 “D”로 나왔다고 해서 “졸반장도 못할 아이”라고 하든가, “A+”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꼭 반장을 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자녀를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너 개의 항목에서 “D”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아”라고 단정해서도 안되며, 몇 개의 항목에서 “A+”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C”이하의 항목이 많다거나, “D”나 “E”가 나와서 걱정이 되고 의심이 난다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목적은 검사 결과 전체를 통해서 검사를 받은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어떤 판단이나 통제를 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평균보다 얼마나 바람직하게 발달하였는가, 그리고 부족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교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여 이끌어 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학과목 선호도검사와 적성(진로) 해설

계열별 적성(진로)분석은 인성(성격 결과), 지능(종합지능 및 항목별 지능), EQ(인성문항 중 감성을 나타내는 문항), 환경(인성문항 중 환경에 관련된 문항) 등에 의해 분석됩니다. 결과표에서 각 계열의 학부별로 받은 지수와 순위가 ()속에 표시됩니다. 받은 지수가 높은 것은, 적응 능력이 우수하고 성공율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적성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단순한 흥미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찍 적성을 알아보고 부족한 분야를 발견하여 고르고, 원만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성이 높은 분야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①학과목선호도

학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분한 것으로 잠재적 능력의 상태를 알아봅니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실제 학업성적이 어떠한가를 비교 분석해 보는 일은 자녀들의 학습지도에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Q적성검사는 학과선택과 관련된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설정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②적성(진로)

한 개인의 장래를 계획하고 적성에 맞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 그리고 직업선택 등을 결정하는 데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한가의 여부와 자신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인성(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선택함으로써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성(진로)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살릴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Q적성검사는 전공학과 계열 선택과 관련된 적성을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분야로 설정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은 현재의 학업성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잠재능력이므로 학교 성적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적성을 일찍 알아서 본인에게 맞는 적성을 살리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본 초·중·고교용 3Q인적성검사에서는 적성에 따른 지도를 조기에 하는 것을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적성이 높은 한 두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발달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성에 따른 진로의 결정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볼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학과 선택은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고교용 3Q인적성검사서 진로분석의 활용을 위에 말씀드린 점들을 유의해서 활용하시면 자녀들을 위해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